월요광장

정치의 위엄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지난달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중국의 승객 수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한 텔레비전 아나운서가 한국인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다가 국내외에서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설사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공적 채널에서 표현하면 아니 된다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 느끼지도 않는 것을 거짓으로 꾸미라는 것인가? 즉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오늘 같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보편윤리를 내면화한 사람이라면, 그 언행에서 위선·진선의 문제가 일어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아나운서까지도 도를 닦은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도 들리지만, 공적 차원은 언행의 보편적 규범을 요구한다. 사람의 삶에는 사사로움을 넘어가는 세계가 있다.

아시아나 사고에서 텔레비전의 앵커에게 요구된 보편주의는 모든 공적 자리에서 두루 요구되는 규범이다. 이러한 요구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곳이 정치이다. 이 요구는 텔레비전 아나운서나 성인(聖人)의 경우보다 조금 더 좁은 것이기도 하고 조금 더 강한 것이기도 한다. 더 좁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의 시대에서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관심과 걱정의 범위는 국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좀 더 강하다는 것은 실천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좁아지는 범위는 규범상의 모순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의 정치인의 쉽지 않은 과제이다. 아마 위에서 말한 방송 실수도 이러한 어려움에 관계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치나 관직의 높은 자리처럼 괴로운 일자리가 없을 것이다. 수해가 나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큰 부정이 발견되거나, 보통 시민들은, 이것이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유감스러운 느낌이나 인생에 대해서 우울한 느낌을 갖는 정도로도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한다. 직장을 얻지 못하는 사람, 병이 나도 병을 고쳐볼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정치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

보통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만도 한 짐이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했다. 간단한 의미에서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만은 아니다. 플라톤의 세계에서는 지도자가 될만한 사람은 이미 진선미의 추구에 정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세속적인 일로 바꾸라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세속과 초월의 모순을 아우르는 차원에 있는 것이 정치이다. 정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삶을 살려는 뜻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날의 정치 현장에서, 잠꼬대 같은 소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치는 권력과 이권의 쟁탈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높임을 받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싸움의 챔피언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정치에 종사하다 보면, 자신의 삶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살겠다는 뜻이 절로 생기는 수도 있다. 현실 정치인의 실상이 어쨌든 정치의 공적 공간에는 어떤 성스러움, 위엄이 있게 되어 있다. 옛날 나이 어린 임금도 임금으로 대한 것은 반드시 사람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의 공적 공간에 높여야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 현장을 보면 정치 공간의 위엄은 완전히 사라진 적으로 보인다. (세속적인 위엄을 위한 장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정치는 막말을 쏟아 성깔을 보이고 투사의 위력을 자랑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보다 높은 삶에 대한 느낌이 없이 정치에 종사할 보람이 있는 것일까? 더 중요한 의문은, 공적 공간의 위엄 그리고 그 엄숙함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져도 사회가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법조칼럼

'경청'하는 자세

최은식
변호사

말은 곧 그 사람이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뿐 아니라 모든 것을 나타낸다.

선거과정에서 정치인들의 토론회를 국민이 진지하게 지켜보는 이유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보고자 함이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해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단,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 잘하기의 중요성은 정치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직장에서의 회식자리는 물론이고 각종 모임에서의 술자리에서 건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도 멋진 건배사를 하는 사람이 능력있어 보이고 인기가 좋다.

그런데 우리는 말 잘하기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고 말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더 근본적인 중요한 덕목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그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바로, 대화의 기본자세로서 '경청'하는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내렸던 휘호가 바로 '경청'이었다고 한다. 수없이 많은 말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휘호까지 내리면서 강조했던 것이다.

경청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알 수가 없고 그 대화는 결국 아무런 의미를 남길 수가 없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만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주변에서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직업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말로 다투거나 변론하는데 익숙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할 것이고 강약 조절도 해야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변호사가 변론을 잘하거나 말을 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비록 장황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의뢰인의 고민을 잘 경청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후련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변론할 수 있다.

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경박하고 그 대화가 지루하다고 비난하는 일은 있어도 내 말을 너무 잘 듣는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화중에 상대방이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자기 자랑에 열중하고 정말 눈치도 없이 장황하고 길게 얘기하며 심지어는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의 미덕도 없는 경우가 많다.

경청하는 자세야말로 겸양의 미덕을 갖추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 자세이다. 서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인터넷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댓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마디로 정말 아수라장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넘어서 시비를 걸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지역감정까지 조장하며 우리 지역을 폄하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많다.

바로, 대화의 기본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경청하는 자세로 겸손의 미덕을 배우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줄 줄 아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기고

광주, 도시이미지 이대로 좋은가

서정성
광주시의원

최근 인터넷상에 광주와 전라도를 비하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올해 5·18을 앞두고 왜곡과 비방이 극심하더니 최근에는 이른바 세계수영대회 유치 공문서 파동과 관련해 하나의 뉴스 꼭지에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빌미를 제공했다는 자괴감에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나 댓글은 사안과 관련도 없는 막말과 욕설이 대부분으로 일부 철없는 사람들의 몰지각한 행위로만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하고 현실적인 우려 또한 크다.

중국 고사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남이 참말로 믿기 쉽다는 말이다. 인터넷상의 악성 글들은 부지불식간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우리 지역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지역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까닭이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시 이미지란 특정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의 총체로서 사람들이 한 도시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각 도시들은 유·무형의 자원을 브랜드화하는 등으로 긍정적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광주의 브랜드로 '의향(義鄕)', '예향(藝鄕)', '미향(味鄕)'이라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브랜드라는 것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그 존재 가치를 갖게 된다.

'의향'으로서의 광주 이미지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해 형성된 도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와 정의, 민주라는 숭고한 가치보다는 안타깝게도 투쟁적 이미지가 부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예향'의 도시 브랜드는 어떤가? 광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은 전통적으로 판소리를 필두로 한 남도소리와 남종화의 본고장임에도 이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자원으로 숙성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맛의 본고장으로서 '미향'의 브랜드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은 없는 것도 만든다고 난리지만 우리는 있는 자원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고의 보석도 원석을 잘 세공하였을 때 비로소 보석으로서 가치를 발하게 된다.

우리 스스로 의향, 예향, 미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전통 자원을 재발견, 재해석하고 가공하지 않은 채 묻어만 둔다면 그 가치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

어느 도시나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떻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차원에서 당장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강력한 대처도 시급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사고를 통해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광주라는 도시는 '살고 싶은 곳', '호감 가는 곳'이라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제 도입 시급하다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학원 차중 경찰에 등록된 숫자가 겨우 5% 안팎이라고 한다. 어린이 운송차로 등록이 안 된 차들 대부분은 사고시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운송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 운송 학원차가 운송특약에 가입되려면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데 차주나 학원측이 경찰에 등록하기를 꺼린다. 그 이유는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차량의 색상을 황색으로 칠하고, 내부엔 어린이용 좌석과 안전띠를 설치하고, 외부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여야 한다. 차량의 앞뒤에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도 설치해야 하고 특히 교통사고에 대비해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특약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니 학원 차를 고치는데만 200만~300만 원이 들고, 보험료는 일반보험에 비해 2~3배 비싸다. 그 때문에 통학 버스로 고쳐서 신고하는 차가 극히 적은 것이다.

통학 버스로 등록이 안 되다 보니 사고 때 피해 아이와 부모가 보상받기가 어렵다. 아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하루빨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즉 어린이 보호 차량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학원이 운행 중인 통학 버스에 대해 신고 의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 통학차 운영업체나 학원들이 영세해서 그게 어렵다면 그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서울시 송파구는 이미 2009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어린이 보호장치는 물론 성범죄 등에 대한 운전자 신원조회, 정밀 운전 적성검사, 교통사고 피해 전액 배상이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본받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던지, 혹은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정해 사고시에 대비토록 하자.

▲나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社說

최악의 폭염 피해없게 적극 대처해야

연일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폭염특보가 끊이지 않는 등 여름 무더위가 심상치 않다.

벌써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와 폭염에 쓰러진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병원을 찾는 온열환자들도 폭증하고 있다. 기상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다던 지난 1994년의 폭염을 뛰어넘을 기세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9월 초까지는 찜통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폭염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나주시 남평의 한 밭에서 일하던 70대가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또 장흥군 용산면의 한 고추밭에서 작업하던 90대도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장흥군 관산읍에서 60대 남성이 열 탈진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목포시 옥암동에서 열경련 증세를 보이던 40대 여성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다.

이 정도라면 이번 폭염은 재난으로 봐야 한다. 5만여명의 희생자를 낸 지난 2003년 유럽의 사태에서 보듯이 폭염은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대형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전력소비 규제 탓에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절실하다.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폭염을 피할 쉼터를 확충하고 냉방시설을 늘려주는 등의 배려를 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평소보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하고 공사현장에서도 휴식시간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서지 쓰레기 산더미, 시민의식 어디 갔나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유원지 곳곳마다 피서객들로 북새통이다. 아직도 유명 산과 계곡에는 어김없이 쓰레기더미가 산처럼 쌓인다고 한다. 자치단체에서는 방문객이 버리고 간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느라 여념이 없지만 좀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종된 시민의식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행락질서가 무너진 대표적인 곳은 광주 교외에 자리 잡은 유명 피서지들이다. 본보 취재 결과 과자 부스러기나 남은 음식물이 계곡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술병까지 함부로 굴러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썽사나울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방문객의 부상까지 걱정된다.

광주시 북구 충효동 풍암정 계곡과 광산구 임곡교 등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에서는 날마다 자치단체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인다. 일부 피서객들은 취사제 한구역으로 정해진 유원지에서 거리낌 없이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것은 다반사다. 심지어 휴식처 주변 숲 속에는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옷가지와 신발,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쌓여 악취도 심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을 동원해 오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가 큰 고역이다. 더욱이 피서객들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을 아무렇게나 섞어 버리는 바람에 일일이 구분해 처리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름 유원지는 많은 사람이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취하는 공원이다. 시민의 공유물인 피서지에서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시민의 자질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즐기는 유원지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의무다. 스스로 품격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단체는 경관 훼손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청결한 피서지를 만들어야 한다.

無等鼓

견공(犬公) 오디션

지난 2009년 4월,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에 한 여성이 등장했다. 47살의 노처녀 수잔 보일. 12살부터 전문가수를 꿈꿨다는 그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뚱뚱한 몸매에 촌스러운 의상, 갑자기 허리를 돌리며 춤을 추는 등 다소 주책맞아 보이는 행동에 심사위원과 관객들은 눈살을 찌뿌렸다.

하지만 노래의 첫 소절이 울려퍼지자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동시에 경악했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삽입곡 '아이 드림드 어 드림(I Dreamed a Dream)'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지금 봐도 완벽한 반전 드라마다.

'오디션 신데렐라'는 승승장구했다. 데뷔 앨범 'I Dreamed a Dream'과 2집 'The Gift'는 빌보드 앨범차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I Dreamed a Dream'은 '미국 내 최다 판매 음반'으로 선정됐었다. 지난해 발매한 'Someone To Watch Over Me' 역시 영국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또 그녀의 인생 역정을 그린 뮤지컬 'I Dreamed a Dream'이 공연됐고 지난 7월부터는 생애 첫 투어 공연에 돌입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바람은 한국에도 불었다. 9일 다섯번째 시즌을 시작한 '슈퍼스타 K' 등 가수를 뽑는 프로를 비롯해 탤런트, 요리사, 모델, 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개'다. KBS 2TV는 개를 주인공으로 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 '슈퍼독'을 10월 선보인다. "애견인 천만 시대를 맞아 최고의 스타견, 모델견이 될 개를 뽑는 국내 최초 애견 오디션으로 인간과 강아지가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다음에는 어떤 오디션이 열릴까. 일단 열정면에서 애견인 못지 않은, 애묘인(愛猫人)들을 위한 고양이 오디션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